

# Ernest Hemingway 에 관한 研究

Part Five - *The Old Man and the Sea*

梁 相 翊

## I

現代 美國의 가장 銳敏한 批評家인 George Steiner는 그의 名著 「悲劇의 衰亡」 (*The Death of Tragedy*, 1961)의 序頭에서 “우리들은 生活上에 있어서 悲劇에 對해서는 意識하고 있다. 그러나 演劇의 形式으로서의 悲劇은 어디서든지 意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叙述하고 있다. 現代社會는 確實히 많은 悲劇에 充滿하고 있다. 戰爭, 貧困, 疾病, 失業, 自殺 等 그 類例를 例擧하려면 限이 없다. 그러나 現實의 次元에 있어서의 人間의 各種 悲慘의 增大는 眞情한 意味로서의 「悲劇의 文學」의 出現을 반드시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現代 社會의 不幸을 寫實的으로 描寫하고 現代 社會의 諸矛盾을 露出 (to scoop) 시키려 하고 있는 많은 Realism 文學의 흐름은 現實의 不幸을 除去하여서, 거기에 人間의 安泰와 平和가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人間은 그것만으로 生活의 價値를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極端的인 例를 든다면 王에게 忠誠을 다하기 爲하여 自己를 犧牲함으로써만 오로지 삶의 보람을 느꼈던 封建時代의 武人들의 生涯와 stereo며 電氣冷藏庫에 들러 싸여 살면서도 조금도 生命의 充足感을 느끼지 못 하는 現代 salary man의 生活과를 과연 어느 쪽이 本質的인 生活方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希臘悲劇의 主人公들을 비롯하여 Hamlet, Romeo 와 Juliet, Lear 王도 그 生活方法은 極히 單純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Lear 王이 어떻게 食事を 하였고 또 어떻게 用便하였는가를 알았다고 하여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人間은 그 純化의 極에 있어서는 恒常 日常生活을 超越하지 않을 수 없는 點까지 이르는 것으로서 藝術技能의 하나가 生命의 原質의 定着에

있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近代 Realism으로 받은 迷妄-人間과 社會의 現實을 있는 그대로 描寫하면 된다는 迷妄-으로 부터 눈을 깨어도 좋지 않을 것인가? 「노인과 바다」는 單純한 生活方法의 이야기이다. 自進하여 困難한 運命을 뒤집어 쓰고, 그 운명을 남 몰래 甘受하면서 生活하여 가는 힘찬 人間의 이야기이다.

## II

“이야기의 주인공은 Mexico灣에서 작은 배를 타고서 혼자 고기잡이 하는 老人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84日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나갔다” 이런 式으로 이 이야기는 始作된다. 原文에는 26語의 sentence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는 形容詞는 “an old man”의 “old” 一語, 副詞는 “alone”이라는 一語 뿐이다. 이 事實로 부터 考察하여도 이 極度の 單純한 이야기가 名詞와 動詞를 中心으로 하여 修飾語가 極도로 적은 文章에 依하여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序頭に 있어서 不漁에 苦心하는 老人과 함께 한 少年이 登場한다. 老人은 Santiago라는 이름이 이따금 出現할 뿐이고 少年은 最後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老人과 少年으로서 普通名詞 그대로 取扱되고 있는 點도 이 小說의 特質의 하나로 看做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서 社會的인 여러 關係로 부터 일단 分離되어 있는 바다란 場所에서 孤獨한 한 老人과 그 副次的인 人物로서 少年이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老人이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狀態를 作家는 Spain語의 “salao”라는 單語로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老人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少年은 큰 고기 세 마리나 잡고 있으며 少年은 老人이 빈 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心情이 된다. 그리하여 老人의 작은 배는 永遠한 敗北(permanent defeat)의 旗와 같이 보인다. 정영코 永遠한 敗北이다. 이 老人의 出漁 自体가 아니, 우리들 人生 自体가 永遠한 敗北 自体를 意味하는 것이 아닐까? 敗北를 覺悟하고 살아가는 것 더욱이나 敗北의 運命 自体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人間의 悲慘과 榮光이 表裏一體가 되어 存在하고 있음이 틀림 없다.

老人은 여위고 衰弱해져서 뒷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살이 새겨져 있다. 얼굴은 太陽에 타서 두 손에는 傷處가 있다. 그 傷處는 두 말할 것 없이 漁夫로서의 그의 職業이 附與한 깊은 傷處인 것이다. 老人에게 關해서는 모든 것이 낡은 것 뿐이다. 그것은 그가 年老하고 있다는 것 뿐만이 아니다. 實際 그의 職業이며 性格도 낡았다 할 수 밖에 表現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다만 한가지 낡음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눈 뿐으로 그 눈은 바다와 동일한 빛깔을 지니고 있고, 바다와 마찬가지로 澀刺하여 不屈의 光彩를 빛내는 것이다. 이 老人은 매우 낡았다. 그러나 낡음에 尙하여 矜矜함을 都大體 얼마나 主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近代는 遠洋漁業을 可能케 하고 老人의 손에 傷處를 내지 않는 方法이 案出되었다. 그러나 그것과 同時に 太陽에 탄 일

굴, 不屈의 個性, 職業에 對한 愛情을 잃고 있는 것이다. 「Lost Generation」이 있어 버린 것이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에 對한 追求는 여기서는 삼가하기로 한다. 하여튼 「Lost Generation」의 旗手 Hemingway가 50歲에 到達하여 잃어버린 것을 虛構의 世界에 奪還하려고 하여 이 이야기를 썼을 것이라는 事實을 우리들은 推察할 수 있다. 老人은 少年에게 고기잡는 法을 가르쳐 주고 少年은 老人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自己 혼자 배운다’ 등의 近代 教育의 原理 등은 全然 거리가 먼 것이다. 技術은 一方的으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은 教師를 사랑하고 있으면 足하다는 것이다. 老人과 少年의 最初의 對話에서도 單純하면서도 英明한 言語가 挿入되어 있다. 少年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運이 좋아서였다. 그리고 또한 老人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도 기억해 네가 내 걸을 떠난 것은 네가 내 고기잡이 실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할아버지 걸을 떠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에요’ ‘난 아직 아이라서 아버지의 말을 복종해야 하니까요’

‘나도 알고 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우리 아버지는 신뢰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I remember,’ the old man said. ‘I know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It was papa made me leave. I am a boy and I must obey him.’

‘I know,’ the old man said. ‘It is quite normal!’

‘He hasn’t much faith!’

‘No,’ the old man said. ‘But we have. Haven’t we?’<sup>1)</sup>

두 사람은 얼마 후에 Terrace 築臺로 麥酒를 마시러 가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漁夫들의 獨自의 世界이다. 고기를 죽이는 것이라든지 肝臟을 잘라내는 일도 그들의 單純한 職業으로서 그것을 淡淡하게 記述하는 作家에게는 些少한 感傷性도 없다. 少年과 老人은 언젠가 老人이 少年에게 고기잡는 法을 가르쳐 준 記憶을 이야기한다. 老人은 ‘太陽에 對한 信賴心이 강한 상냥스러운 눈’으로 少年을 본다. 또 그는 少年에 對하여 언제 自己를 卑下하였는지 自己 自身도 모를 程度로 單純한 人間인 것이다.

1) Ernest Heming. The Old man and the sea, Penguin Books, P.6

이윽고 두 사람은 出漁의 準備를 하고 老人의 봉나무로 만든 오락사리 집까지 온다. 船具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그 房의 壁에는 예수의 聖心 (the Sacred Heart of Jesus) 과 고부레의 聖処女 (the Virgin of Cobre) 의 그림이 걸려져 있다. 두 사람은 出漁에 對한 이야기 野球의 이야기를 한다. The Yankees 를 말하고 the great DiMaggio 를 말한다. 그러나 野球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거기에 숨어있는 것은 강한 것, 튼튼한 것에 對한 素朴한 동경심이다

‘그럼 누가 제일가는 감독일까요? 투우커일까요 혹은 마이크 곤자레일까요?’

‘둘 다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훌륭한 어부는 할아버지예요’

‘아니야, 나 보다 난 사람을 나는 알아’

‘아무도 없어요. 좋은 어부들도 많고 훌륭한 어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만이 제일입니다’ 하고 소년은 말했다.

‘고마우이! 너는 나의 맘을 즐겁게 만든다. 지금 우리들이 한 말을 뒤 집을 만한 큰 고기가 낚시에 걸리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힘이 있다면, 그렇게 큰 고기는 없을 것 같아요’

‘who is the greatest manager, really, Luque or Mike Gonzalez?’

‘I think they are equal.’

‘And the best fisherman is you?’ ‘No. I know others better.’

‘Que va,’ the boy said. ‘There are many good fishermen and some great ones. But there is only you.’

‘Thank you. You make me happy. I hope no fish will come along so great that he will prove us wrong.’

‘There is no such fish if you are still strong as you say.’<sup>2)</sup>

여기서 読者は 곧 나타나게 될 大魚에 對한 伏線이 보이게 되겠지만 그다지 神經을 쓸 必要는 없다. 오히려 老人이 잠이 들어서 꿈꾸게 될 Africa 쪽이 훨씬 重要하고, 또한 滋味있는 것이다. 꿈을 꾸면서 老人은 少年時節로 되돌아 가서 金빛으로 빛나는 海邊, 눈이 따가울 程度로 하얀 바닷가, 높은 岬, 큰 茶色の 山들을 追憶한다. 그의 꿈 가운데에는 ‘별새 暴風, 女子, 大事件, 大魚, 戰爭, 힘 겨누기, 妻에 대한 追憶같은 것도 없다’ 그의 腦裏에 떠오르는 것은 여러가지 土地에 關한 것, 海邊에서 장난치며 놀고있는 lion에 關한 것이다. lion은 초저녁에 고양이 새끼 모양으로 장난치며 놀고있고, 老人은 ‘少年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lion도 사랑하였던 것이다.

2) Ibid., P.17.

‘할아버지, 고기 많이 잡아 오세요’

‘너도 많이 잡아’ 하고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돛에 매어 있는 줄을 노에 걸고 노 끝으로 물 속을 한 번 질러서,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날이 밝기 전에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 나갔다.

‘Good luck old man!’

‘Good luck; the old man said. He fitted the rope lashings of the oars onto the thole pins and, leaning forward against the thrust of the blades in the water, he began to row out of the harbour in the dark.’<sup>3)</sup>

老人은 이렇게 하여 出發하지만, 그와 더불어 出發한 배들도 또한 沈黙을 지키고 있었다. 노를 짓는 소리 以外에는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얼마 後에 배들은 모두 제각각 目的한 곳으로 흩어져 갔다.

아침이 되자, 海上에는 날치들이 물 위로 튀어 오르기 시작한다. 老人에게는 날치는 바다에서 親舊이기 때문에 그는 날치를 사랑하고 있었다. 老人은 새들에 對해서는 불쌍한 感을 금치 못한다. ‘새들은 우리들 보다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질 하는 새들과 크고 힘이 있는 새들을 除外하고는 말이다. 바닷물은 이렇게 사나운데 왜 神은 갈매기 같이 연약하고 아름다운 새를 創造하였을까?’

바다는 親切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바다는 너무나 殘忍하다. 그리고 殘忍性이 갑자기 나온다. 그래서 가냘픈 소리로 물에 뛰어들기도 하며, 또한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갈매기들은 거친 바다에 比하여 너무나 弱하게 만들어졌다. ‘親切하고 아름답다’와 同時에 ‘殘忍할 수도 있다’의 바다의 二重性은 이 小説의 theme과 密接하게 結合된다. 왜냐하면 곧 出現하게 될 大魚는 老人에 對하여 敵이면서 同時에 親舊라는 二重的 意味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二重性은 本質적으로 自然의 二重性과도 連關되어 있는 것이다. 老人은 바다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는 바다를 항상 *la mar*로서 생각한다. 라말(*la mar*)은 서반아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할 때 부르는 서반아어이다. 종종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나쁘게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바다를 여자 처럼 취급해서 말했다. 약간의 젊은 사람들은 특히 낚시줄을 펴우는데 부표를 사용하고, 그리고 상어간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발동기가 달린 배까지 산 젊은 어부들은 바다를 *el mar*라고 말한다. 열마이는 바다에 대한 남성이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 혹은 일터, 심지어는 적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3) Ibid., P.22.

그 노인은 항상 바다를 여성으로서 생각하고, 또는 후의를 베풀어 주거나, 후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바다가 사나워져 남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바다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달이 여자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바다도 감동시킨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He always thought of the sea *la mar* which is what people call her in Spanish when they love her. Sometimes those who love her say bad things of her but they are always said as though she were a woman. Some of the younger fishermen, those who used buoys as floats for their lines and had motor-boats, bought when the shark livers had brought much money, spoke of her as *el mar* which is masculine. They spoke of her as a contestant or a place or even an enemy. But the old man always thought of her as feminine and as something that gave or withheld great favours, and if she did wild or wicked things it was because she could not help them. The moon affects her as it does a woman, he thought.<sup>4)</sup>

讀者는 여기서도 老人이 異常케 여겨질 程度로 素朴한 마음가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自然은 人間에 對하여 敵對視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에게 惠澤을 주는 것, 상냥한 것, 더 말하자면 永遠한 故鄕, 人間이 돌아가야 할 母胎와 같은 것으로 意識되어 있다. 거기에는 近代에 있어서의 主觀과 客觀의 對立, 人間과 自然과의 對立은 없다. 自然의 法則을 알므로써 自然을 支配하고 自然을 征服의 對象으로 생각하는 近代人의 立場은 젊은 世代들의 立場에 依하여 代表되고 거기에는 自然과 人間의 內的인 因緣은 遮斷되고 있는 것이다.

Hemingway 가 回復하려고 願하였던 것 - 그것은 現實의 次元에서는 回復할 수 없기 때문에 虛構 속에서 回復하려고 願하였던 것 - 은 自然과 人間과의 內的인 因緣, 다시 말하면, 人間이 거기에서 죽을 수 있는 永遠한 母胎로서의 '自然'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例를 들면 다음 引用文에 繼續되는 다음에 나타나는 老人이 배를 저어가는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

노인은 간단없이 천천히 노를 저었다. 그리고 노인은 무리한 속도를 내지 않는 까닭에 그다지 힘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때때로 일어나는 소용돌이 외에는 바다 물결은 잔잔했다. 노인은 노젓는 삼분지일의 노력은 조류가 덜어주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시작할 때는 이때 나와 있어야 한다고 마음 먹었던 곳 보다 훨씬 멀리 나와 있었다는 것을 짐작했다.

He was rowing steadily and it was no effort for him since he kept well within his speed and the surface of the ocean was flat except for the occasional swirls of the current. He was letting the current do a third of the work and as it started to be light he saw he was already further out than he had hoped to be at this hour.<sup>5)</sup>

4) Ibid., P.23

5) Ibid., P.24

여기서도 老人과 바다와는 힘을 서로 도우면서 하나의 親和關係가 保持되어 있다. 老人은 고기를 잡기 始作하고 낚시에 떨치를 피고서 낚시줄을 내리운다. 少年으로 부터 얻은 다랑어로 고기를 誘惑하기 爲하여 水中에 매달아 놓았다. 太陽이 떠올라서 老人의 눈은 아픔을 느낄 程度로 刺戟을 받는다. 조용한 아침, 海上의 風景은 더할나위 없이 單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描写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形容詞는 極度로 省略되어 名詞와 動詞의 單純한 文章이 接統詞에 依하여 結合되고 適當한 連統性을 띤 꼼꼼한 文章이 繼續된다. 海面上에 나타난 軍艦鳥(a man of war bird)의 모습, 낚치의 飛翔, 浮遊生物의 배에 있어서의 老人의 期待 - 그것들은 마치 映畫를 보면서 다음에 일어날 事件을 期待하는 觀客의 마음과도 恰似한 緊張感을 讀者들에게 誘導한다. 낚치, 새, 튀어서 登場하게 될 큰 거북, 그리고 海中의 浮遊生物 까지도 틀림없이 自然의 一部를 構成하는 것으로서, 不可思議한 程度의 親愛感을 가지고서 描写되어 있다.

새로운 고기의 出現이 豫感될 때 마다 老人은 큰 소리로 혼자 말을 한다. 老人은 언제부터 이런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記憶이 나지않는다. 그러나 大聲으로 혼자 말하게 된 것은 少年이 고기잡이로 同行하지 않는 때 부터였다. '바다에서는 不必要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美德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沈黙을 지킬 수 있단말인가? 배에 다 radio를 가지고 다니는 요즈음의 사람들 보다도 혼자 배 속에서 큰 소리치는 自己 쪽이 매우 낫다'고 老人은 생각한다. 얼마 後 老人은 한잠 자려고 하지만, 84日間의 不漁를 생각하면 그리 쉽게 잠잘 수는 없는 노릇이다. 老人은 亦是 고기를 잡아야하는 것이다.

### III

老人이 繼續하여 낚시줄을 잡고 있는 동안에 드디어 무엇인가가 줄을 잡아 당기고 있는것 같았다. 한 마리의 머투가 낚시와 끈은 부분에 꿰어져 있는 정어리를 뜯어 먹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老人의 마음은 躍動한다.

'자! 어서와' '또 한번 물어봐, 냄새를 한번 더 맡아봐라! 맛이 있지 않으나? 맛이 좋다. 먹어라, 그리고 또 밤어 미끼도 있다. 그것은 좀 여물고 차지만 맛이 좋을 것이다. 수줍어 말아라, 야 이 고기야, 어서 먹어 버려라,' 하고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Come on; the old man said aloud. 'Make another turn. Just smell them. Aren't they lovely? Eat them good now and then there is the tuna. Hard and cold and lovely. Don't be shy, fish. Eat them.'<sup>6)</sup>

6) Ibid., P.35

고기는 물지도 않았지만 가버릴 도리도 없다. 老人은 곧 부드러운 感觸을 느꼈다. 무엇인가 굳굳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感觸을 느꼈다. 老人은 이것이 얼마만큼 큰 고기인가를 알 수가 있었다. 老人이 期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기는 물고는 있었지만 어쩐지 그 고기 때문에 배가 서서히 끌려가는 氣分이었다. 이러한 狀態가 네 시간이나 繼續된다. 老人의 心中에는 더욱 期待가 充滿되어 있다. 몇 時間 後에는 大魚는 반드시 浮上할 것이 틀림없다. 老人은 孤獨을 意識할 때마다, 少年이 같이 있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老人의 마음은 亦是 바다와 그리고 고기들과 굳게 結合되어 있다. 그러기에 老人의 自己의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고기가 普通 고기에 없는 偉大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기에 對하여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老人은 갑작스레 한 記憶에 잠기게 된다. 그 언젠가 머무 고기의 夫婦와 만났던 때의 記憶이다. 그 때 老人은 암 늑을 낚았지만 솟 늑은 잠시도 老人의 boat를 떠나지 않았다. '그 늑은 最後까지 逃避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고 老人은 고기의 美德을 只수도 讚美치 않을 수 없다. 하여튼 이번에 낚시줄에 걸린 고기도 보통 고기와는 다른 훌륭함을 지닌 고기일 것이다. 고기의 運動으로 老人은 쓰러지고 눈 밑에는 傷痕을 입는다 그러나 老人은 縮念하지 않는다. 고기는 '敵'인 동시에 確實히 老人으로서는 들도 없는 親舊인 것이다.

'이 늑아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늑을 놓치지 않는겠다' 고 노인은 부드러운 나 늑은 음성으로 소리쳤다.

'고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대단히 존경도 한다. 그러나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너를 죽이고자한다' 고 老人은 말했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Fish,' he said softly, aloud, 'I'll stay with you until I am dead.'

'Fish,' he said, 'I love you and respect you very much. But I will kill you dead before this day ends.'

Let us hope so, he thought.<sup>7)</sup>

老人과 大魚가 낚시줄을 媒介로 하여 緊張하고 있을 때 작은 새가 날아 온다. 작은 새 亦是 바다의 一部 自然의 一部로서 老人의 작은 새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素朴하고 아름답다. 老人은 空服感을 느껴서 少年으로 부터 얻은 방어를 大魚에게도 먹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點이다. 再次 말하지만 大魚는 老人에게는 싸워야 할 敵이면서도 同時に 들도 없는 親舊인 것이다. 老人은 왼쪽 손에 槳를 일으켰고, 오른쪽 손으로 고기와 對決할 것을 強要한다. 그러는 가운데 오른

7) Ibid., P.45, P.46



쪽 손에서 強力한 大魚의 힘을 느끼고서 緊張하게 된다.

드디어 고기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 고기 양쪽 지느러미에서 물이 양편으로 잘라졌다. 햇빛에 고기는 반짝였다. 그리고 머리와 등은 자주색이다. 그리고 고기의 양쪽 배에 걸려있는 넓은 줄은 햇빛에 연자주색으로 보였다. 그 고기의 주둥이는 野球 배트 길이만 하였고 끝은 가는 칼 같이 생겼다.

老人은 있는 힘을 다하여 고기와 對決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老人은 고기 쪽이 人間보다 高貴하고 훌륭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고기와 나의 兩쪽 손은 말하자면 三兄弟 같은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 老人은 信仰心이 강한 便은 아니지만 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聖父와 聖母에게 祈禱를 올린다. 그리고 그는 最後에 다음과 같이 祈禱를 계속한다. 祝福 받으신 Mary여 이 고기의 죽음을 위하여 祈禱해 주옵소서. 훌륭한 고기지만 그 고기는 죽읍니다.

한 쪽으로는 大魚를 征服하여 죽일려고 願하면서도 또 다른 한 쪽으로는 大魚를 위하여 祈禱하고 싶은 心情, 이것이 矛盾이 아닌가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老人은 그 矛盾을 矛盾 그대로 受容하고서 힘껏 사랑하는 것이다.

“그 놈이 그렇게 크고, 훌륭하여도 나는 그 놈을 죽여야 한다”고 노인은 말했다.  
죽이는 것은 정당한 것은 아니되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이 어떤 것을 참을 수 있나 하는 것을 그 고기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이상한 노인이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 그 말을 증명해야만 될 때이다”고 노인은 말했다.

‘I’ll kill him though’, he said. ‘In all his greatness and his glory.’  
Although it is unjust, he thought. But I will show him what a man can do and what a man endures.  
‘I told the boy I was a strange old man’, he said. ‘Now is when I must prove it!’<sup>8)</sup>

老人은 疲勞感을 느끼고, 얼마 후에는 해가 진다. 갑자기 老人은 野球일을 생각한다. 偉大한 DiMaggio를 생각하면서 自己도 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老人은 Casablanca의 어떤 선술집에서 黑人과 팔씨름을 一晝夜에 걸쳐서 한 것을 回想한다. 여기서 讀者는 野球나 팔씨름이 다 sports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마 老人의 생각하는 野球며 팔씨름의 背後에는 作者의 마음을 불잡게 하는 것은 Spain의 闘牛가 있을 것이다. 勇者의 倫理, 勇者의 美學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弱者보다 強者를 挾하는 價值觀念은 一見하여 個性의 擴大에 價值를

8) Ibid., P.57, P.58.

생각하는 近代 個人主義의 倫理와 共通點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보인다.

그러나 The Sun Also Rises 와 A Farewell to Arms 로 부터 出發한 Hemingway 로서는 既成 價値體系를 전부 空虛한 것으로 보는 nihilism이 우선 體驗的인 實感으로 的中하게 된 것이다. 믿을만한 價値體系가 存在하지 않고, 現實이 平面化 되었을 때 人間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Hemingway에 있어서 냉혹한 所謂 hardboiled realism과 Spain의 鬪牛에 對한 熱狂이 結付되는 것은 여기서이다.

現實에 人生을 人生답게 살아가는 原理가 存在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發生하는 空洞( 텅빈 큰 골짜기 )을 行爲에 依하여 메꾸려고 試圖한 것이 初期·中期에 있어서의 Hemingway의 立場이었다. 乾燥한 文体는 nihilism을 基底로 하였을 때만이 成立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nihilism으로 부터 脫出口로 하여서 熱狂的인 行爲가 불러 일으켜졌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할 것은 sports는 恒常 rule을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單純한 自我(ego)의 擴張은 結局 孤獨을 免치 못할 것이다. sports는 rule이라는 假想壁을 設定하므로써, 그리고 그 壁에 對한 絶對的인 服從을 通하여 生의 確認을 求하는 行爲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을 支配하고 있는 倫理는 實은 生의 擴張과는 正反對로 stoicism에 不遜한 것이다. Hemingway의 初期·中期의 作品은 stoicism을 豫感하면서도 아직도 nihilism의 對極에 放恣한 行爲를 두었다는 點에서 一種의 惡循環으로 부터 免할 수 없다. Hemingway가 自己의 nihilism의 空白를 行爲에 依하여 메꾸려고 하는 行動主義의 限界를 確實히 意識하게 된 것은 亦是 The Old Man and the Sea 에 있어서 일 것이다. 이 作品에는 어떠한 倫理的인 自己主張을 發見할 수 없다. 行爲에서 放出된 energy는 stoic한 行爲者를 描写하는 造型의 energy에 轉化되고 여기서 비로소 悲劇的인 空間이 完結性을 가지고 創造된다.

「바다」는 「老人」이란 個人을 超越한 「全體」로서 出現하여 老人을 包含한 또한 老人이 돌아가야할 永遠한 故郷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Hemingway는 바다는 戰爭場所이며 同時에 거기는 죽을 수 있는 場所로서 바다를 攄한 것이다. 그러한 바다의 二重性은 同時에 大魚의 二重性에도 連絡되어 있기 때문에 大魚는 敵이면서 同時에 親舊였어야 하였던 것이다.

老人은 大魚와 對抗하면서 드디어는 잠을 잔다. 꿈 속에서는 또한 Africa의 獅子가 나타난다. 고기는 여전히 침착하게 헤엄치면서 老人의 배를 끌고간다. 老人이 잠에서 깨면 大魚는 活力을 나타낸다. 몇번이나 老人과 大魚 사이에는 格鬪가 벌어지고 얼마 後에 大魚는 傷處를 입는다. 老人은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움을 벌이지만 그것은 고기를 위해서가 아니다. 老人은 힘이 弱해진 大魚를 boat에 잡아매고 陸地로 되돌아 올려고 한다.

지금은 고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자기의 양쪽 손과 등에 상처도 꿈이 아닌 것을 알았

다. 손은 빨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처에서 피는 깨끗이 흘렸고, 또한 소금물은 상처에 좋을 것이다. 만류에 검은 소금물은 정말 훌륭한 약이다. 그래서 나는 머리만 맑게하면 된다. 손이 해야 할 일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무사히 항해를 하고 있다. 저 고기는 입을 꼭 다물고 꼬리를 필릭필릭하면서 우리들은 형제처럼 같이 항해했다.

Now he knew there was the fish and his hands and back were no dream. The hands cure quickly, he thought. I bled them clean and the salt water will heal them. The dark water of the true gulf is the greatest healer that there is. All I must do is keep the head clear. The hands have done their work and we sail well. With his mouth shut and his tail straight up and down we sail like brothers.<sup>9)</sup>

그런데 죽어가는 大魚를 向하여 상어가 공격하기 始作한 것은 그 後부터였다. 상어는 피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어디서든지 모여들기 때문이다. 피 냄새를 잊었는가 생각되었을 때에는, 또 냄새를 맡고서 추격하여 오는 것이다. 고기 가운데 상어와 같이 強力하고 執拗한 것은 없다. 상어는 大魚를 向하여 온다. 이것을 본 老人은 질겁한다. 이제는 希望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은 決意와 敵意 뿐이다. 大魚의 身体가 상어에 뜰까면 거기에서 피가 흐른다. 고기의 피는 再次 상어의 大群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大魚는 벌써 죽은 것 같이 느껴졌다. 老人은 自己가 그 大魚를 죽였다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大魚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希望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하고 그는 自己自身을 激勵하였지만, 老人의 마음은 快로와지지 않는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해 못하고, 또 나는 죄를 믿지도 않는다. 아마 고기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될지 알 수 없다. 나는 내 자신 살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죽였지만, 죄가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죄가 되겠다. 죄에 대하여는 생각치 말아라.

I have no understanding of it and I am not sure that I believe in it. Perhaps it was a sin to kill the fish. I suppose it was even though I did it to keep me alive and feed many people. But then everything is a sin. Do not think about sin.<sup>10)</sup>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老人은 如前히 생각한다. “너는 漁夫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고기를 죽인 것이다. 너는 고기가 살았을 때도 사랑했고, 죽었을 때도 사랑했다. 너가 고기를 사랑

9) Ibid., P.88, P.89

10) Ibid., P.94

하고 고기를 죽였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혹은 그것이 죄 이상의 무엇이 되겠나?

얼마 후에 Galanos 라는 상어가 습격하여 왔다. 老人은 칼을 가지고서 Galanos 배와 必死的으로 싸움을 벌인다. 그러나 상어 배에 이길 도리는 없다. 大魚는 점점 뜯어 먹히고, 밤이 온다. 상어의 공격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다. 한 밤중에 老人은 또 한차례 血鬪를 벌였으나 大魚의 살은 뜯길 뿐이다. 그리고 드디어는 大魚의 살은 全部 빼앗기고 말았다.

## IV

얼마 후에 老人은 陸地에 到着하고 自己 집 오막살이에 돌아와서 잠을 잔다. 少年은 뒷날 오두막에 찾아와서 老人의 傷處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漁夫들은 老人의 漁船에 붙어 있는 大魚의 뼈대를 보고 모여들어서 老人을 慰勞한다. 老人은 少年과 말하고 모여든 사람들과 말한다. 하지만 老人의 體驗한 秘密은 理解되지 못한다. 老人은 여기에서도 孤獨하고 年老한 處地를 생각하면서 人間行為의 徒勞함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본 것은 고기의 巨大한 白骨이다. 길을 가는 女子들은 여러가지로 想像한다. 그러나 白骨의 背後에 숨겨져 있는 老人의 心情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當然한 일이다. 人間은 各者 固有의 秘密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바다에 처한 사랑, 大魚와 壯烈한 鬪爭, 大魚에 對한 秘密的인 親愛感도 他人은 도저히 理解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제멋대로의 想像은 아랑곳 없이 老人은 繼續하여 잠을 잔다. 少年은 老人이 깨어날 때 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앉았다. 그리고 老人의 夢中에 出沒하는 것은 Africa 의 lion에 對한 모습이다. 永遠히 젊고 永遠히 強力하지만 絶對的인 孤獨한 存在 獅子에 對한 꿈에 依하여 老人의 孤獨한 싸움은 完結되고 靜謐만이 남는다. 老人은 무엇 때문에 大魚와 싸워야 했는가? 아마 大魚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老人이 大魚를 메리고 돌아 왔다면 老人은 卑俗한 形態로서 勝利者의 地位를 獲得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勝利란 무엇인가? 許容된 勝利에 무슨 興味가 있을 것인가? 老人은 孤獨한 敗北을 意慾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 敗北 가운데서 確認된 孤獨이야말로 老人의 生涯에 對한 唯一無二한 証明인 것이다. 人間은 누구나 다 表面的으로는 勝利와 成功을 希望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人生은 그것 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意慾된 敗北, 그 敗北를 通하여야만이 把握할 수 있다는 「自己」의 確認, 아마 悲劇的인 文學이 人間에 對하여 가지고 있는 意味는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닐까? 20世紀가 나온 悲劇的인 小説 The Old Man and the Sea는 그러한 人間性的인 根源的인 構造를 우리들의 눈 앞에 은밀한 形態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Summary —

## A Study on Ernest Hemingway

### Part Five- "*The Old Man and The Sea*"

Yang, Sang Ick

*The Old Man and The Sea* is the tragic story of an aging fisherman's lonely and heroic struggle to catch a giant marlin far out at sea. An old man of Cuba, whose name is Santiago, went eighty-four days without taking a fish and then he took the marlin on just eighty-five days. The big fish is 18 feet long and it weights 18 pounds. Later the old man is destined to struggle the shark hitting the marlin for 40 hours. The struggle makes him very tired and he comes back home at last. But the marlin is all nakedness.

The hero of this story, as a man of nature, tells the heroic struggle and endurance, getting over the physical pain and fatigue. The hero, Santiago has all characteristics which other heroes have once had. That is, he is masculine, courageous, endurable, simple, primitive, practical and intimidatory.

The hero, unlike other past ones gets the spiritual triumph and sees life in the affirmative, adjusting himself to Divine Providence and meeting the Great Nature. For his part, the laws that man makes are nothing but trivial.

*The Old Man and The Sea* is often compared to the epic of the sea, the tragedy of Greek and an essay of human understanding. The well-known phrase of the work,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represents the sublime attitude toward man and the endless combative spirit.